사 설

종교편견 없었나

지난 4일 MBC의 시사고발프로그램 PD수첩은 석용산의 재산과 여자문제를 다룬 특집을 방영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공문을 통해 그 편파성과 부당성을 시정하고 정중히 사과하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MBC는 이에 대해 사과는 유보한 채, 방영의 고충과 정당성을 변호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PD수첩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그늘에 가린 인권의 사각지대를 들추어내고, 부당한 권력과 기득권의 횡포를 고발하는 드문 시사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자본의 논리와 언론의 보수성에 저항하면서 수백회의 전통을 축적한 PD수첩은 우리 사회의 정론에 적지 아니 이바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PD수첩이 과감히 불교계 주변의 비리를 고발하고 나섰다. PD수첩측은 석용산을 다루면서 남다른 고뇌를 거쳤고 파장을 우려해 주저 끝에 방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이 나가자 예상대로 불교계신문과 방송사에는 신도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불자들 모두가 얼굴에 화로불이 끼얹어지는 참담함과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이다.

불자들은 이 기획이 300회특집으로 마련된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MBC는 93년 석굴암의 통일대종을, 그리고 이어 소쩍새마을의 일력으 행각을 발굴하여 고발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어 석용산의 비리를 추적보도한 것은 불교를 음해하고 탄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심지어 제4 제5의 불교관련고발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은 법이다. 불교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보편의 종교이다. 드리운 그늘이 크다 보니 이런 저런 불미한 일들이 불교의 이름 아래 음습하게 자라기도 한다. 문제는 그러나 그 존재유무가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치유하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일찌감치 석용산의 행적을 감찰하고 그의 승적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 놓았다. 애시당초 사미계만 받았을 뿐 정식승려가 아니었으니 박탈하고 말 것도 없이 자동제적된 상태였다는 것이 옳겠다. 그렇다면 MBC는 석용산을 불교도로서가 아니라 불교를 도용 참칭하여 혹세무민하고 있는 단순파렴치범임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그런데도 프로그램에서는 승적도 없는 사람을 시종일관 스님으로 호칭하여 오해를 야기시켰고, 여인의 신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교계신문기자로 자막처리하여 불교계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전체적 구성을 보면 불교계와 종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다분히 감정적으로 불교를 다루고 있다는 혐의를 갖게 한다. 보도의 선정적 효과를 노려서인지 마치 조계종단이 석용산을 비호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서둘러 파문시킨 것처럼 애매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증대시켰다.

이 불공정과 선정성은 혹 MBC의 의도 속에 종교적 편견은 없는가를 묻게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타종교의 유사한 비리들을 제쳐두고 유독 불교계 주변의 그것만 캐내고 고발하는데 주력한다면 사회고발프로그램으로서의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방송과 언론이 종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숨겨진 일각의 비리를 폭로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사회적 책무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영원과 초월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믿음, 바로 인간의 종교적 열망을 다치지 않고 지켜가는 일이다.

포교사 전문화 모색

조계종 2300명 배출 청소년·복지·문화등 특화

조계종 포교사의 전문화가 모색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2천3백여명에 이르는 포교사들을 포교인력으로 적극 활용키 위한 방안으로 전문화를 검토키로 하고 우선 서울·경기지역 포교사 7백여명을 대상으로 활동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포교원은 이 간담회를 바탕으로 매년 두차례 실시하는 포교사교육을 분야별로 실시하고, 포교사증에 분야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포교원은 9월 포교사단 사두국장을 임명, 포교사 관련업무를 전담케 하는 등 포교사 활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간담회 이후 포교사 전문화를 의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최일산 월곡청소년센터 관장은 "고급 불교자원을 활용키 위해서는 지금처럼 포괄적인 개념의 포교사가 아니라 전문화 세분화해 구체적인 활동영역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전문포교사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이 배출한 포교사는 2천3백여명에 이르며, 포교사들의 활동 중심이 되는 포교지단은 경남과 대전·충남 등 전국에 5개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포교사 활동분야 및 간담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대상(유아 어린이 대학생 청년 포함) 12월5일 △일반인대상(직장법회 사찰) 6일 △특수(군·경찰서 교도소 소년원) 9일 △사회복지 11일 △기타(방송연예) 12일. 활동분야는 장소 임대관계로 5개로 제한했다고 포교원은 밝혔다.

〈정성운 기자〉

"종단비하 의도 없었다"

MBC, 조계종에 회신

조계종 총무원이 MBC에 PD수첩과 관련 사과방송을 요구한 공문에 대해 MBC측은 "11월4일 PD수첩에 방송된 '석용산은 뭘 갖고 저승 가지'는 종단을 폄하하거나 음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MBC는 총무원에 보낸 회신에서 "현재 PD수첩은 석용산 건을 제외하고 귀 종단과 관련된 다른 내용은 취재하거나 방송할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귀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비행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비방' 기독교TV

유선방송위서 '경고'

기독교TV의 빈번한 불교비방이 문제시되자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3일 '제101차 심의위원회의'를 갖고 문제가 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기독교TV 프로그램의 불교비방은 방송에서 타종교 비방을 금지하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의규정' 제40조를 위반한 행위여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TV측도 이와 관련 자체심의 과정을 강화해 타종교 비방내용은 삭제후 방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포교원 연내 군법당 지도방문

군포교현황 점검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스님)은 연내로 군법당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포교원 차원으로는 처음 실시되는 이번 지도방문은 군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법사들을 격려하며 군법당 시설 및 군포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교원은 "1차 1백5개의 군법당중 군단급 법당과 시설이 낙후된 전방 법당 6곳 정도를 선정해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주BBS 타종교인이 방송 '물의'

'뉴스와이드' 진행·해설 개신교도가 맡아

불교청주방송의 외부 진행자와 고정 출연자가 타종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청주불교방송의 로컬제작프로인 '뉴스와이드96.7'(월~토, 오후7:25~8:00)의 진행자 홍신희씨(前 서원대 총장)와 이 프로그램에서 매일 10분씩 시사해설을 하고 있는 김춘길씨(중부매일 논설실장)가 개신교도로 알려져 지역불자들의 비판 여론이 일고있다. 홍신희씨는 청주중앙예장교회 신도로 부인이 권사이고, 김춘길씨는 청주 상당교회신도로 알려졌다. 최근 PC통신에 '청주 불교방송의 의문점'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홍씨를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교방송을 진행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왔고 이에 대해 "뉴스프로그램인데 기독교인이 불교방송을 진행하면 안되는 이유를 답하라"는 맞불이 뜨는등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불교방송이 개국 초기 타종교인으로 알려진 당시 교수 H씨를 진행자로 출연시켜 불자들의 거센 항의와 비판여론에 진행자를 교체했던 일도 있어 이번 불교청주방송 문제는 불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위영란·강지연 기자

美JTS, 北어린이 영양식 지원

나진·선봉에 공장설립

북한 경제특구인 나진-선봉지역 어린이 1만여명에게 구호물자가 무상지원된다. 미국 JTS(이사장 법륜스님) 상임이사 최경숙씨는 14일 '나진-선봉지역 방문 활동보고회'를 갖고 "나진-선봉시행정경제위원회 공업관리국과 어린이 구호활동과 관련, 9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영양식 공급과 이를 위한 공장설립 등 구호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미국 JTS는 나진-선봉지역에 있는 탁아소 50곳 유치원 54곳 어린이 1만5백50여명에게 매월 3천만원 상당의 영양식품과 구호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북한측은 미국 JTS의 구호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나진-선봉지역 '물고기 가공공장' 부지 2백평과 건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JTS는 약 1억5천만원을 투자, 영양식품 생산공장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동국대 이사장 송석구총장은 18일 키르키즈공화국 초청 방문에서 동국대와 키르키즈공화국간 불교문화 및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동국대-키르키즈대 교류협정

경제발전도 협조

동국대가 키르키즈공화국 및 키르키즈국립민족종합대학교와 불교문화 및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18일 녹원스님(이사장)이 키르키즈공화국 아카에프 대통령 초청으로 키르키즈공화국을 방문, 키르키즈공화국 정부 관계자와 키르키즈국립민족종합대학교 베르블라예프 총장과 교수, 스님, 학생교류 및 학술, 교육정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협정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국대는 또 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단계에 있으며, 불교 및 학술교류 외에 양국 교육기관 및 경제발전에도 대해서도 상호 협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녹원스님은 키르키즈공화국 방문기간중 양국간의 문화교류에 대한 기여로 키르키즈국립민족종합대학교 베르블라예프 총장으로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송석구 총장은 평생교수로 초빙됐다.

북어린이돕기 결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모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회장 설조 불국사 주지)은 18일 수덕사에서 모임을 갖고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운동의 지속전개와 북한 어린이 돕기에 적극 나설 것등을 결의했다.

10여명의 본사주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 본사주지들은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될 때까지 서명운동 전개 △정부의 민족정기 함양과 전통문화 중흥을 위한 정책제시 촉구 △북한 어린이돕기 운동을 적극 추진 등을 결의했다.

"대북식량지원 필요"

민족돕기·시사저널 대선후보간담회서

이회창(한나라당) 김대중(국민회의) 이인제(국민신당) 세 대통령 후보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동포애에 바탕한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서영훈)과 〈시사저널〉은 1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대통령 후보 초청-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세 대통령 후보는 "북한 동포에 대한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은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태고종 동방불교대 설립인가

99년 단설대 개교

태고종(총무원장 인곡) 동방불교대가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경기 용인에 불교학과 40명 정원의 단설대학 신설을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99년 개교예정인 동방불교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동방불교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설립을 인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태고종은 지난 7월 선암사 종단간부 연찬회에서 동방불교대를 선암사내에 건립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어 건립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동방대 총동문회는 12월 6일 오후 5시 타워호텔에서 학교건립기금마련을 위한 '제1회 동방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오랜만에 뜻이 통했네

訃告

八空山桐華寺 副住持이신 慶曇堂 泰日 大和尚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1년 11月 18日(陰 10月 19日) 午前 7時 通天寺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 永訣日時 : 佛紀 2541年 11月 21日(陰 10月 22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八空山 桐華寺 道場
■ 茶 毘 場 : 八空山 桐華寺 茶毘場

大韓佛教曹溪宗 第九教區本寺 桐華寺 住持 無空 合掌

慶曇堂 泰日 大和尚 桐華寺葬 葬儀委員會

증 명 : 고송 화산 범룡 진제
장의위원장 : 무공
부위원장 : 원명
위 원 : 도봉 영봉 동일 지성 성우 성덕 원학 장일 성타 명성 종운 보현 혜정 법민 혜선 혜담 성천 정륜 태공 지정 지우 보인 도명 금강 청수 묘적 정관 한우 회룡 정각 대윤 법해 역공 선주 효상 금봉 홍관 정안 무량 문성 정현 원현 성종 선오 학연 대유 정업 성준 명심 성욱 법전 보명 지성 승암 청호 지환 지산 현수 일경 청학 학명 초세 동호 성연 선진 현철 정윤 대덕화 자성화
호 상 : 성타
지도위원장 : 선봉
부위원장 : 종운
지도위원 : 혜운 수암 운성 정오 경희 현선 혜선 종열 자명 성범 재문 혜명 인각 희조 법상 수성 동진 정광 부용 경암 정각 정민 월현 서래 병수 연진 상용 무문 여명 효성 명권 용안 진묘 자호 법륜 법륜 영조 법인 금강 인성 원종 재원 명권 자명 성묵 덕해 지형 정우 정문
집행위원장 : 성호
도 감 : 정효 의 전 : 지도
지 객 : 각정 재 무 : 오정
섭 외 : 선종 홍 보 : 김성수 사 제 : 부용
경 호 : 법현 병 법 : 돈오 원 주 : 운정
문도대표 : 일타
문중대표 : 선지
상 좌 : 선지 정명

大韓佛教曹溪宗 慶曇堂 泰日大和尚

桐華寺葬 葬儀委員會